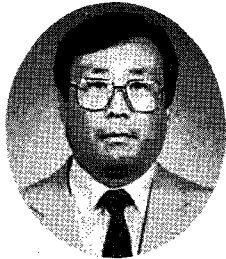


## 國益優先의 政策施行



진 재 선  
동아건설산업(주) 상무

93년 2월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을 중심으로 축하한다.

### 國民意識의 大轉換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나 과거의 권위주의나 관료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주화 자체가 자칫 방종이나 무질서로 인식되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구조나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변화는 행정이나 절차의 개선

을 주축으로 해서 국민의식 대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행과 함께 사회적으로 만연된 3D 현상은 물론이고 한탕주의, 집단이기주의 등 모든 분야에 깔려있는 장애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국가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누구나 해외에 나가 있으면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해외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애국가는 새삼스레 조국에 대한 감격을 불러온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한 번 씩은 느껴본 감정일 것이다.

그들은 모든 약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외화를 벌고 우수한 품질의 공사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며 내 집 마련 등 고국에서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모든 국

민이 자신의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땀 흘린 자만이 잘 살 수 있는 국가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技術開發의 支援

현대는 국제경쟁의 시대이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개발이나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닌만큼 정부는 이 방면에 각별한 관심과 기술보국이라는 긴 안목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 각 분야의 민간기술개발을 유도 및 촉진시키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정책면에 있어서도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요망된다. 정치적 이유나 반핵운동 또는 집단이기주의 등의 영향에 따르는 정책의 일관성 상실을 배제하고 경제성, 환경보호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난제들이 순리대로 해결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 그리고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합심 노력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